

‘점프의 경기’ 배구 센터 무릎이 가장 괴롭다?

평균 점프 하중, 센터 신영석 96.5 압도적 1위 리시브하는 레프트, 센터 보다 20 이상 적어

배구는 점프의 경기다. 가로, 세로 각 9m 크기의 코트에서 6명의 선수가 3번의 기회 안에 공을 떨어트리지 않고 반대편으로 넘기려고 다양한 동작을 펼치지만, 결국 높은 점프를 이용해 네트 너머로 강한 스파이크와 서브를 넣고 블로킹을 잘 해야 유리하다.

그렇다면 V리그 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몇 차례나 점프를 할까. 지난 시즌 대한항공에서 전력분석을 담당했던 프란체스코 올레니 코치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0~2021시즌 V리그 남자선수들이 얼마나 점프를 많이 했는지를 전력분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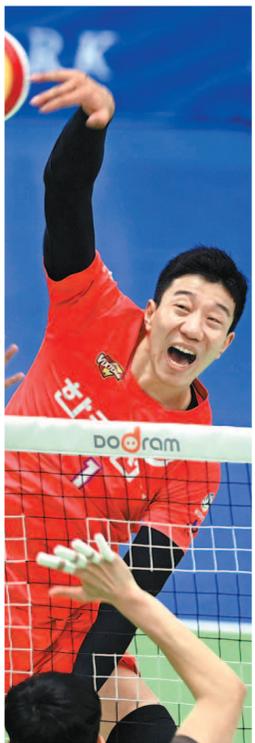
올레니 코치는 배구경기 도중 점프는 힘과 빈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점프를 10개의 상황으로 세분했다. 서브 때, 세트 순간, 윙 공격수와 센터의 공격 때, 블로킹 때 등으로 나눴고, 이를 또 구체적으로 나눠 각 점프 동작이 몸에 미치는 하중을 각각 1.0, 0.9, 0.8, 0.5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온몸을 사용해 때리는 스파이크서브와 정확한 리시브에서 연결된 세트, 날개공격과 파이프공격, 좋은 리시브에서 시작된 센터의 속공과 페인트공격, 센터와 날개공격수의 블로킹 등은 점프의 하중이 1.0이었다. 리시브가 흔들린 상태에서 세트와 세트의 속공, 페인트공격은 각각 0.8, 점프플로터서브와 파이프공격 블로킹은 0.5로 봤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올레니 코치는 지난 시즌 V리그 남자선수들의 경기당 평균 점프 하중 통계를 봤다. 포지션별로는 센터가 가장 높았고, 라이트~세터~레프트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점프 하중을 기록한 선수도 센터였다. 신영석(현대캐피탈~한국전력)이 96.5로 압도적이다. 센터 부문 2위는 하현웅(우리카드·85.7), 3위는 최민호(현대캐피탈·84.2), 4위는 박상하(삼성화재·81.2), 5위는 김홍정(KB손해보험·80.1)이었다. 네트 앞에서 점프를 많이 하는 포지션답게 센터는 10위 박진우(KB손해보험·71.5)까지 경기당 평균 점프 하중이 70을 넘었다. V리그 센터 전체의 평균 점프 하중은 61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레프트 부문에선 알렉스 페헤이라(우리카드·77.9)가 1위였다. 카일 러셀(한국전력·77.3), 정지석(대한항공·63.5), 김정호(KB손해보험·58.7), 박승석(대한항공·52.1)이 각각 2~5위에 올랐다. 리시브에 참여하는 레프트는 센터에 비하면 경기당 평균 점프 하중이 20 이상 적었다. 9위 황형민(삼성화재·46.4)까지는 40을 넘었다. 레프트 포지션의 평균 점프 하중은 17이었다.

올레니 코치는 위치별 평균 점프 하중도 계산했다. 센터(61)~라이트(60)~세터(25)~레프트(17)의 순이었다. 그는 “V리그에서는 많은 보조 역할의 선수들이 랠리 때 공격 대신 서브와 리시브에만 참가해 레프트의 평균 점프 하중이 낮다. 공격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팀에서는 라이트의 점프 하중이 특별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지난 시즌 라이트에서 가장 높은 점프 하중은 득점 1위(1147득점)를 차지한 노우모리 케이타(KB손해보험)였다. 90대 후반으로 신영석과 거의 비슷했다.



신영석

새벽 2시, 행운의 도쿄행... “후회없이 뛰겠다”

세계선수권 3회전 탈락...올림픽 불발 오세아니아연맹 쿼터 포기 다시 찬스

“혹시나 하면서 매일밤 IJF서 랭킹 확인 내이름에 빨간색...축하전화 쏟아졌죠”



한희주

대한민국 여자 유도의 기대주 한희주(24·필룩스)는 자신의 첫 국제종합대회였던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여자 63kg급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더 큰 그림을 그렸다. 2020도쿄올림픽 금메달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척이나 험난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부족해 이달 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1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야 했지만 3회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다행히 극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다. 23일 IJF가 대한유도회에 한희주의 올림픽 쿼터 획득 소식을 알려온 것이다. 유도회 관계자는 “오세아니아연맹이 배분된 올림픽 쿼터 2장을 쓰지 않으면서 한희주에게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다.

한희주는 귀국 후 자가격리 도중 도쿄행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 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이들은 15일 귀국해 1주일만 자가격리를 한 뒤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티켓 획득에 실패했던 한희주는 품짝 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다. 그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을 터. 그는 24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지금도 자가격리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격리 중에도 홈트(홈트레이닝)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여자유도대표팀 한희주(위)는 극적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올림픽만 바라보며 달려왔기에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올림픽 출전이 아닌 메달을 꿈꿨기에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세계선수권 3회전 탈락으로 사실상 체념하고 있었다. 3회전을 통과하면 랭킹 포인트를 채울 수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맞대결 상대가 이 체급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현재 세계랭킹 1위인 클라리스 아그베그네누(프랑스)였다. 결과는 한 판패. 후회 없이 싸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연했다. “올림픽만 보며 유도를 해왔다. 선수촌에 입촌해 2년간 AG, 3년간 올림픽을 준비했다. 후회 없이 준비했으니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자는 생각이었다. 속상했지만, 다음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자고 생각했다.” 한희주의 회상이다. 그러나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은 놓지 않았다. 한희주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IJF) 홈페이지에 들어가 랭킹을 확인했는데, 이를 전에 보니 내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 ‘이게 뭘까’ 싶었는데, 대한유도회와 대표팀 선생님 등 여기저기서 축하전화가 오더라. 그때 실감했다. 그때가 새벽 2시였다”고 털어놓았다.

올림픽만 바라보며 구슬땀을 흘렸기에 지금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한희주는 “꿈이 줄 알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며 “단순히 올림픽 출전이 아닌 메달을 꿈꿨기에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63kg급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모두 라이벌로 꼽고 있다. 매 경기를 결승이라고 생각하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기며 뛰고 싶다. 정말 후회 없이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현대모비스 김민구, 결국 은퇴

‘亞 베스트’에 선정됐던 베테랑 고관절 손상 후유증으로 현역 마무리

울산 현대모비스 가드 김민구(31·191cm)가 다소 이른 시점에 은퇴를 결정했다. 김민구는 2021~2022시즌 연봉협상 과정에서 팀 관계자에게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설득을 내었지만, 김민구는 마음을 굳혔다. 현대모비스

는 김민구의 은퇴를 공식할 예정이다.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운동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은 김민구는 동기 김종규, 두경민과 함께 ‘경희대 빅3’으로 불렸다. 대학 재학 중 남자농구국가대표팀에 발탁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고, 2013년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현 아시아컵)에선 베스트5로도 선정됐다. 김종규에 이어 전체 2순위로 전주 KCC



김민구

의 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한 2013~2014시즌 46경기에서 평균 13.4점·5.1리바운드·4.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골장 존 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2014년 여름 유증운전사고로 고관절을 크게 다쳤고, 신경까지 손상돼 운동능력을 잃었다. 장기간의 재활을 거쳐 코트르 돌아왔지만 기량의 100%를 회복할 수 없었다. 타고난 감각

으로 최대한 버티며 선수생활을 지속해왔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사인&트레이드로 DB로 이적한 김민구는 평균 20분여를 소화하며 7.0점·2.7리바운드·2.8어시스트로 눈에 띄게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김종규, 두경민과 다시 한 팀에서 만난 것도 화제였다. 2020~2021시즌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현대모비스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에도 활약상이 괜찮았지만, 무릎 부상 등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논란 키우는 K리그 정심·오심 공개...왜 굳어 부스럼 만들까

남장형 기자의 피버피치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 매 라운드가 끝나면 공식 홈페이지 'Notice' 코너를 통해 심판평가소위원회의 심판수행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심판행정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심판 관리 및 관련 업무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부터 거의 빠짐없이 전 경기의 판정 내역을 알려왔다.

이렇게 주요 경기 판정들의 정심·오심 여부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꽤나 이례적이다. 과거 프로축구연맹이 심판 업무를 담당할 때도 정심·오심에 대한 내용 평가를 공개한 적은 있으나, 개별 판정이 옳았는

지의 여부를 지금처럼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 대개는 시즌 중반이나 시즌 종료 후 통계 수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단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프로리그에서도 정심·오심을 하나하나 오픈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심판행정을 협회가 총괄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외치면서 이 부분만은 꼭 빼놓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 정심·오심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논란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심판들과 평가위원들이 ‘정심’으로 평가했다고 해도, 판정 평가는 결국 주관적 영역이다. 협회가 ‘정심’이라고 올린 사안을 구단과 팬들이 ‘오심’이라고 반박하면서 새로운 논란들이 촉발되고

있다. 모호한 용어 선택도 아쉬운 대목이다. 협회는 ‘OO vs OO 경기, 주요 상황판단 적절’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 일부 논란이 된 경기에서조차 ‘주심 판단 존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불필요한 화를 키우기도 했다.

축구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적절’이나 ‘존중’ 따위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면 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존중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막해의 무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지하는 느낌”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는 심판들에게도 맥 빠지는 상황이다. 인력 풀이 그리 넓지 않은 K리그 심판들의

이름은 대중에게 노출돼 있다. 어떤 경기에 누가 배정됐는지,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만 살펴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인사가 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 판정수행평가가 낱말이, 또 일일이 공개되는 것이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판정에 대한 평가는 결국 심판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시키고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취지인데, 지금의 분위기에선 차라리 예전처럼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경우 또는 오심이 확실한 경우에만 판정평가를 공개하되, 해당 심판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굳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정을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

yoshike3@donga.com